

전남대 교수들, 총장 직선제 복귀 나섰다

전국 국립대교수들 토론회... 교육부 간선제 전환 반발 “대학이 동물농장이냐” 재정지원 압박 갑질 강력 성토

전남대 교수들의 분위기가 심상치않다. 교육부의 ‘국립대 총장의 간접 선출’ 입장에 맞서 총장 직선제를 염두에 둔 토론회를 열며 직선제 논의의 첫발을 떤 등 정부와의 대립각을 본격적으로 세우는 모양새다.

당장, 전남대 교수협의회를 비롯, 거점 국립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토론회 중 교육부측이 내놓은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방문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토론회가 총장 직선제를 포함, 행정 지원을 내세워 대학 자율성·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는 교육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엿들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향후 교육부의 대립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전남대 교수회(회장 김영철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는 2일 오후 2시 대학본부 용

봉홀에서 ‘전남대 교수회 위상강화 및 총장선거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원일 전남대 교수회 위상 및 기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발제를 비롯, 김재호 부산대 전 교수회 의장 등이 나서 ‘거점국립대 교수회 위상, 역할 및 과제’를 토론했다. 김원재 전남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라는 게 김영철 회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학 안팎에서 총장 직선제 회복을 위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교수회 위상 강화’, ‘거점국립대 총장선출 추진현황·과제’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학구성원 및 교수들 사이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의 ‘총장 간선제 방침’이 아닌, 총장 직선제 회복을 위한 전남대 교수들의 목소리가 공론화됐다는 게 해석이 지배적이다.

토론회는 총장 선출제 뿐 아니라 교육부의 압박에 대한 교수들의 입장도 고스란히 드러냈다. 김영철 전남대 교수회 회장은 이날 토론회 자료집 첫 머리, 모시는 글을 통해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교육부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당근과 채찍’ 정책으로 오늘날 대학사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떤이들은 대학 사회를 동물농장에 비유하기도 하다”면서 “교육부가 던져주는 먹이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동물들처럼 정부와 거대 자본이 던져주는 재정적 지원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동안에 지식의 상징이자 진리의 상이 타협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대학 사회를 꼬집기도 했다.

김 회장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부의 ‘국립대 총장의 간접 선출’ 입장과 관련, “전남대 교수협의회를 비롯, 거점국립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이 지방문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회장을 만나 교육부의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방문 회장도 이날 면담에서 교육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내놓은 ‘총장 임용제도 보완책’을 국·공립대 총장협의회(3일) 의견을 듣고 최종 확정하겠다는 것은 총장협의회를 둘러싸고 세우는 행태로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는 현행 법령상 직선제(교수 투표)와 간선제(총장 추천위원회 선정)로 이원화된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추천위 선정 방식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국립대 총장 임용제 보완책’을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가 마련해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고교생들이 ‘폭탄주 파티’

‘야자’ 무단이탈... 술집 인증샷 SNS 올렸다 벌미

남부경찰, 술 판 업주도 조사

야간 자율학습을 빼치고 술집서 폭탄주를 돌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교 당국에 벌미를 잡혔다.

자랑삼아 술집서 촬영한 ‘폭탄주 인증샷’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이 벌미가 됐다. 술집 업주도 학생인 줄 알고 술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사실에 격분한 학교 측이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일정기간 가게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남부경찰청은 2일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에게 술을 판매한 술집 주인 A(여·55)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광주시 남구 방림동 자신의 술집에서 광주 A고등학교 1년 B(16)군 등 6명에게 소주 12병과 맥주 13병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B군 등 학생들은 이날 “집안 제사다. 몸이 아프다”며 학교를 빠져나온 뒤 미리 준비한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이후 인근 학교 축제 현장을 구경한 뒤 자연스럽게 술집에 모여 술과

안주를 나눠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른바 맥주와 소주를 섞은 폭탄주를 제조해 마시는 광경을 한 학생이 휴대전화로 찍어서 자랑삼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비롯됐다. 손 모양을 ‘V(브이)’자로 하고 환하게 웃는 얼굴 사이로 술병들이 나뉘는 모습의 사진은 SNS를 통해 확산됐고 이를 본 한 시민이 광주시교육청에 신고하면서 ‘술 파티’가 탄로난 것이다.

시 교육청을 통해 학생들의 음주 사실을 파악한 학교 측은 학생들이 지난 9월에도 같은 술집에서 생일파티를 벌인 사실을 확인한데다 술집 업주가 학생인 줄 알면서도 술을 팔았다는 사실에 격분, 경찰에 직접 위법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주는 지난해 9월에도 청소년들에게 3만4000원 상당의 술을 팔다 적발돼 벌금 50만원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면서 “학교 당국이 경찰에 직접 술집 업주를 처벌해달라고 신고한 이유는 실수로 술을 판 것이 아니라 학생인 줄 알면서도 돈을 벌려고 술을 팔았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말했다./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여친 폭행 의전원생 사건 교육부, 실태 파악 착수

여친친구를 감금·폭행하고도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그쳐 논란이 된 조선대 의전전문대학원생 사건(본보 1일자 6면)에 대해 교육부가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조선대에 4일까지 사건의 경과와 학생들의 상황, 이에 대한 학교의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측에 사실 관계를 파악하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같은 의전원생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의전원생 A(33)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학교 측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박씨에 대한 처분을 미루고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조선대 의전전문대학원은 지난 1일 오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사랑의 떡국 나눔 2일 광주 북구 일곡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연말 이웃돕기 사랑의 떡국떡 판매 행사에서 주민센터 직원들과 자원단체 회원들이 떡국떡을 포장하고 있다. 떡국떡 판매 수익금은 북구장학회 장학금과 불우이웃돕기에 쓰일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빛원전 방폐물 운반선 기상 악화로 진도해역 피항

영광 한빛원전 앞 10km 해상에서 어떤 반발로 나올간 정박중이던 방사성 폐기물 운반선 청정누리호(2600t)가 2일 기상 악화로 진도 가사도 앞 해역으로 피항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이 운용하는 청정누리호는 앞서 지난달 27일 포화상태에 달한 한빛원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일부를 경주 방사성 폐기물처리장으로 옮겨가려고 영광 앞바다로 왔지만 어떤 이들이 해상시위를 벌이면서 입항이 저지됐다.

공단은 측은 최근 2년간 어업권이 있는 선박 778척 가운데 575척의 선주가 전권을 위임한 영광 수협대책위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지난달 23일 어촌계장 4명과 ‘밀실 합의’를 한 뒤 경주에 있던 청

정누리호를 영광으로 보냈다.

이 소식을 접한 어민들은 그러나 “한빛원전 내에 30년째 임시로 보관 중인 핵폐기물 일부를 꺼내서 최종 처분장에 보내야한다는 입장에는 큰 틀에서 동의한다”면서도 “바다를 터전으로 하는 어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조업 손실 보상 합의 전에는 허용할 수 없다”며 발전소 앞 해상에서 그물을 치고 조업활동을 벌이는 방식으로 반발하고 있다.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영광 앞바다 기상이 악화한 만큼 5일까지 진도 가사도 인근으로 선박을 피항시킨 사실은 맞다. 하지만, 경주로 배를 되돌릴지 다시 영광 앞바다로 뱃머리를 돌릴지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경찰, 2차 민중대회 상경 차량 검문검색

경찰이 오는 5일 서울에서 예정된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집회를 불허했지만, 전국 각지에서 상경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2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차 민중총궐기대회’ 당일 상경하는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포 예방과 제지’를 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쇠파이프

등 폭력 시위 도구로 쓸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차량에 신고 있으면 출발을 막을 방침이다”며 “단 폭력 시위 도구를 현장에 놓고 가면 상경을 막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민주노총 광주본부 1000여명과 전남본부 3000여명,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2500여명 등이다. 광주·전남지역 공무

원노조도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정보와 차원에서 노동·농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폭력 등 불법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경하는 것 자체까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8년 대법원은 ‘금식 통고된 집회·시위라 할지라도 이를 참가하려는 지방의 참가자들에게 상경을 못하도록 막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제1차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했던 광주·전남지역 단체와 회

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일 오후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노조연맹의 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등 사무실 4곳을 압수 수색했다. 하드디스크, 회의 자료, 모자 등의 물품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무실 주변에는 총돌을 우려해 기동대 200여명이 배치됐다. 앞서 광주지방경찰청은 노동단체 관계자 등 4명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술만 마시면 도벽...마구잡이 절도 30대 철창행

○“술만 마시면 도벽이 생겨 상가와 학교 등에서 마구잡이로 물건을 훔쳐 집에 보관한 30대 남성이 철창행.

○2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39)씨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광양지역 상가나 학교, 어린이집에 침입하거나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전자제품과 건설

공구 등 1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과정에서 술에 취하면 물건을 훔치고 싶은 버릇이 생겼다고 진술했다”며 “A씨의 집에서 TV, 빔 프로젝터 등 35점을 압수했는데, 가장 이상한 물건을 들고 오는 것을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하다”고 쓴소리.

/광양=박영진기자 pyi4079@

신축 상가원룸 매매

〈전대 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대-58평, 건-125평)

1층 (상가)
2층~3층 총 (룸 10개)
4층 (주택)

4면 올 대리석 시공
신축 원룸 / 내부 깨끗 / 풀옵션

(보 - 4천만 월 - 500만)

매가 6억 9천만 (용1억)

010-6834-4800 / 010-6832-9700

근린상가 오피스텔(소액투자)

〈매월 월세로 연금대비 하세요!〉

-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한국은행앞 (용5천)(보1천,월70만) → 매가 1억3천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상무나이트옆 (용4천)(보5백,월 42만) → 매가 7천5백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 옆 (용5천)(보1천, 월50만) → 매가 8천5백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옆 (용2천)(보3백, 월33만) → 매가 5천만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45평) 울수리 (용5천)(보1천월60만) → 매가 1억1천만
-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천역1번출구 3분 (용2천)(보2백,월32만) → 매가 3천8백만
- 광산구 첨단지구 월계동 상가층(40평) (보8백,월80만)(용4천) → 매가 1억5천만
- 광양 광영동 상가A.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아파트단지 (보2백,월25만) → 매가 3천5백만
- 북구 중흥동 전대 정문/후문 2분거리 (상가원룸) 1층 (상가22칸) 2층~3층 (원룸6개,투룸2개) 4층 (주택) (보4천,월520만) → 매가 6억8천만
- 북구 우산동 7층상가건물매매 (사우나 건물) (보1억2천,월1,020만) → 매가 17억

010-7384-7800

(1층) 사무실 임대

〈법원 정문 앞 1층〉

법원앞 (1층) 사무실 임대

♣ 22평

(즉시입주가능, 올리모델링 완비)

버스,택시승강장 앞 (위치 최고)
(법무사,변호사,일반 사무실 적합)

보증금 2,000만 / 월 80만

010-6670-9800